

성스러운 열사복무

이 나라 민심의 바다우에 절세위인의 위대한 헌신의 모습, 거룩한 자욱자욱이 우렁이 새겨진 천만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큰물파해를 입은 은과군 대청리와 태풍이 휩쓴 황남 땅에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고 또 얼마전에는 함경남도의 태풍피해현장을 찾으며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주신 인민의 아버지.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냥 언제나 사랑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그 위대한 감정의 보폭속에서 이 땅에 자연의 광란은 덮쳐들어도 온 나라 인민들의 얼굴마다엔 밝은 웃음이 떠날 줄 몰랐고 남녀노소 누구나 그 위대한 심장에 운명의 숨줄을 잇고 행복에 겨워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를 한껏 터치고있다. 너무도 평범한 인품에, 너무도 순결하고 용감처럼 뜨거운 특유의 인정미에,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사람을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며 인류사의 최고높이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위인상을 본다.

서방의 한 언론인은 자기의 글에서 인류정치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정치가, 국가사업에만 전심전력한 국가수반이라 해도 그가 누구이든 후사를 철칙으로 여겼다고 썼다.

오늘날 이 세상 그 어디를 돌리보아도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불태우시며 명절날, 휴식일도 따로없이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대장정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같이 온인민의 영도자는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인민행정정은 인류사에 그 류례가 없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려정이다. 세상에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생도록 정력을 쏟아부었다는 위인은 있었어도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였다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인민의 아버지만이 더칠수 있는 심장의 토로인 열사복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란 시대가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에서 불리워지게 된것은 어느때부터였던가.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려정우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세인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시대를 격동시켰던가.

주체103(2014)년 1월 어느 날이었다. 평범한 이 하루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 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집무탁을 마주 하시였다.

그이의 집무탁우에는 인민들의 생활의 단편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물고기차를 맞이해 기뻐하는 보양생들, 생선국에 술을 뜨며 좋아하는 애들, 저저마다 활을 다루며 공급받은 물고기를 날라가는 과학자가족들의 모습...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받아내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진들을 다시금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펜을 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백옥같이 희던 종이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써나 하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 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 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 것 같고.

그이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

평생토록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초월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념민을 이 땅우에 거어 이 꽃피우실 억척의 신념을 가다듬으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펜을 드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담아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야

가자고 힘주어 쓰시였다. 열사복무!

력사에 전후후무한 이 말은 이렇게 태어났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를 론하고 지적하시였고 홀을 보시면서는 홀을 넓게 꾸리고 거기에 승마복도 대어해주고 필요한 상품도 팔아주게 하면 좋겠는데 홀을 작게 꾸리고 필요없는 방들만 꾸러놓았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었고, 설계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으니 봉사직을 맡을 일이기도 만들어놓았다고

이런 복무는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있어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그 어떤 직책상의무가 아니라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도덕의리이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일관단신 단도다만 믿고 따르온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게 될 대양민족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성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이 숭고한 도덕의리, 충실성, 책임성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하루하루가 초인간적인 정력과 로고로 수놓아지고 이 땅우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이 땅우에 마련된 모든 기적과 행복의 열매들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갈 철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바꾼것이라는 철기가 열사복무라는 이 시대에 그 대로 비껴흐르고있다. 2013년 10월 어느날의 깊은 밤이었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은 좀처럼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방금전 이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이 걱정을 꺼쳐드렸던것이.

조절하게 하시던 그의 질책의 말씀이 그냥 귀에서 메아리쳤다.

봉사직을 맡아 가시어는 봉사직을 바깥벽에 통나무를 댔는데 창문 옷부분과 밑부분에만 대다나니 보기 싫다고, 통나무가 모자라서 채 붙이지 못한것 같은감이 든다고 지적하시였고 홀을 보시면서는 홀을 넓게 꾸리고 거기에 승마복도 대어해주고 필요한 상품도 팔아주게 하면 좋겠는데 홀을 작게 꾸리고 필요없는 방들만 꾸러놓았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었고, 설계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으니 봉사직을 맡을 일이기도 만들어놓았다고

이제 설계를 전부 다시 검토하고 수정방안을 찾자고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은 뻔했다. 또 그렇게 되는 경우 완공날자를 어기게 된다는 결론밖에 더 나올것이 없었다.

일군들은 가슴에 재가 없었다. 건설장을 망연히 바라보느라 근심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건설장우에 강력한 진동들이 비쳐들었다. 뒤이어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일군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니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는 것이였다.

일군들모두의 눈길이 손목시계에 미쳤다.

새벽 3시 10분. 그러나 건설장을 떠나셨던 그이께서 3시간만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책과 놀라움이 뒤섞인 일군들의 얼굴을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지켜보시다가 나직 한 어조로 좀전에 여기에 와서 봉사직을 돌아보고 건설을 거칠게 한대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하시던 건설대상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를 따라서는 일군들의 두볼로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의 헌신의 세계는 그같이 과연 어디인가.

생각할수록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승마구락부로 훌륭히 일떠세워 귀중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락주시기 위해 바치시는 그의 불같은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선특한 새벽기운이 떠도는 건설장에서 한시간이나 지체하지 않고 건설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수정방안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봉사직을 맡아 야외관람대, 실내승마훈련장 등 승마구락부의 모든 요소들을 실용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승마구락부의 체모에 어울리게 꾸리고 위한 방도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창조세계,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다시한번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일군들, 건설자들이 더더욱 격정에 목메었는데 그이께서 건설장을 떠나가신 후 공사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아니 그럼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공사장을 떠나가신 후 또다시 저 멀리 최전연의 명사들을 찾아가시였던 말인가. 정말 그의 현지지도길은 언제나 초강도 강행군길의 연속이다.)

방송원의 목소리를 눈물속에 들으며 공사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중천에 떠오른 태양을 우러렸다.

은 누리에 발산되는 햇빛이 것처럼 따사로운것은 거대한 태양이 자기를 강그리 불태우기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강그리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만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밤에 자기들을 2차례나 찾아오셨던 그의 불같은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3시간만에 다시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그 길은 마음속에 오로지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아버지만이 걸을 수 있는 현지지도의 길, 열사복무의 려정이었다.

바로 그런 무수한 헌신의 발걸음이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열사복무의 려정우에는 그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꽃피어났던가.

그 불멸의 려정우에는 머나먼 전선길에서 방금 돌아오시였건만 아이들을 위한 소년단야영소의 현대화공사가 격정되시어 잠시라도 휴식 하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도 마다하시고 그날 새벽으로 공사장을 찾아 험한 눈보라길을 달려가신 어느 일요일의 이야기도 있었고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한몸의 위험을 뒤집어 미루어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은 삭도를 타보시면서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안전을 가늠해 보신 마식령의 전설도 새겨졌다.

여기에 한 작가의 수첩에 적혀진 글말이 있다. 《나의 옆에서 걸고있던 80리경의 한 늪은이가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뇌이고 있었다.

얼마나 힘드셨겠소. 우리 원수님도 인간이신데! ... 아, 정말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인간이시다. 인간이시기에 그이께서도 쉬셔야 하며 인간이시기에 그이에게도 가정의 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이께선 그것을 모르시지는가? 하시면서도 그 길로는 가실수가 없으신 그이이신가?... 위대한 격변이 오늘 무한대 한 열정과 끝없는 용인력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그이의 지칠줄 모르는 열사복무, 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려 더 쓸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더 쓸수가 없는 이 야속한 북

아! ...》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려정은 령도자로서의 사명감만으로, 정치적인지 하나만으로 걸을수 없다.

자나깨나 그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인민에게 행복의 꽃 주단을 펼칠줄 일념으로 심장을 꿰어는 불타는 열정, 우리 조국을 부강하고 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강렬한 의지와 열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바로 이 열정, 이 의지와 열망으로 심신을 녹이시며 조국 땅 그 어디에나 열사복무의 자욱 새겨가신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려정에 집무실을 두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수천리, 대륙을 넘어 수만리를 이어가시며 려사에 류례없는 창조와 변혁의 기적, 세계적인 사변들과 거창한 전법들을 려이어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는 승관이 되어 그런지 열차가 집보다 더 편안하고 좋다고,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더 불편하다고 혼연히 말씀하실 때 목격자들인 일군들,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그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찾아들었던가. 그이께서 걸으신 열사복무의 천만리여행만큼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높아만 갔고 그이께서 울리신 땀방울, 맞으신 눈비만큼 무수한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고 기쁨진 창조물들이 파도쳐 솟구쳤다.

장구한 인류사에서 순간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이룩된 인민을 위한 경이적인 기적들은 언제나 인민을 가슴에 안으시고 인민이 아직은 다 모르는 배를 짊어고 뿔뿔이 달려오는 고뇌와 심혈을 바치시며 자신을 후사시조로 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고성과 헌신, 뜨거운 로고와 맞바꾼 위대한 승리이다.

하긴만 인민을 위한 그 길에서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열사복무의 려정만을 변함없이 걸어 가실 열화같은 맹세를 다지신 당창건 일흔둘 경축광장에서 그날로부터 10여일이 흐른 어느날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한다.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

참으로 이 숭고한 뜻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위한 열사복무의 려정은 그 사랑의 열도에 있어서나 헌신의 열정에 있어서나 려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길이다.

오늘도 은과군 대청리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차례나 오시였던 그때를 떠올리며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한생의 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농장마을이 과연 어떻게 될 뻔 했는가.

원수님과 멀어지면 순간도 못살고 원수님 떠나신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없다고. 그들만이 아닌 저 멀리 아득한 바다가운데 떠있는 이름없는 등대섬의 사람들과 백두산기슭의 립산마을 인민들, 아니 이 나라 방방곡곡의 남녀노소가 자기들의 삶의 보호자, 운명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지나가거나 그리며 목청껏 터친다.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듯한 마음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 아

김정은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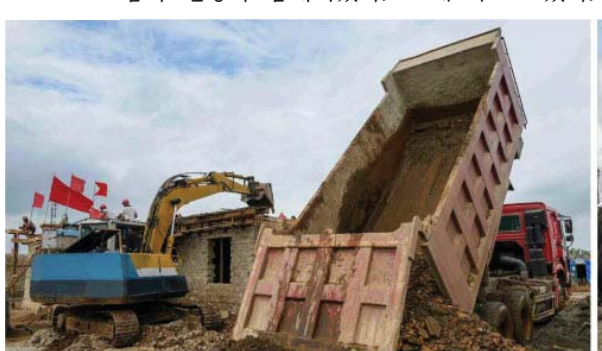
그이 없인 못 살 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살아

본시기자 한영수

인민을 위한 일애장서는 군대



자연재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 해주기 위한 투쟁으로 은과군 대청리를 비롯한 공화국의 큰물피해복구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지방의 특성과 인민들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보다 견고한 새 집들을 일떠세우는 군인건설자들의 따마고 노력으로 하여 모든 건설대상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체모를 갖추어가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철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관철의 위력으로 실천해나가는 인민의 군대가 행기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날로 커가는 공화국이다.

돌이켜보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군인건설자들의 값높은 위훈과 성스러운 따마고 열정이 스며들어있다.

대동강의 쑥섬 한가운데 자리잡은 전민학속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이며 라신시의 폐해지역의 천지개벽된 마을들, 러명거리, 미배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중평남내온실농장...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친 이러한 창조물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신념의 후호를 가슴에 새기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 하면 그 어떤 험한 일에도 온몸을 내대는 군인건설자들의 노력이 안아온 것이다.

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되어서도 자기들은 주민지역의 물과 공기만 마시면 된다고 하면서 낮과 밤을 모르고 건설을 해체한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이며 밝은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를 뒤에 두고 조용히 초소로 떠나간 그들은 두고 인민들은 우리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인민군대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들마다에서 언제나 돌격대, 선봉대가 되어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그 앞에는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험마당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남남저 어깨를 들이대는 지휘관들도 있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참된 복무의 길에서 자기의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있는 미더운 군인들.

이런 인민군대가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이 땅에서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이 커가고있다. 본시기자 강류성

매복과 흠모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선 큰나쁜 민음과 사랑으로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 당당히 내세워주시는 청년중시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청년문제는 그 어느 나라나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청년문제를 훗날로 해결하지 못하여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락오자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청춘시절을 인생에 다시없을 값높고 보람찬 시절로 빛내일 숭고한 지향을 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강그리 바쳐가고있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크게 믿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의 위인이 계시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체101(2012)년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함 레일론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담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

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어 청년들에게 큰나쁜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을 위한 대회도 여러차례 마련해



주시였으며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명철인 청년절도 크게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마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절을 맞은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로도 보내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오시어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원수님께서선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을 위한 대회도 여러차례 마련해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 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규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이 확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 우리 당 려사에 청년절도 찍자고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 청년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한사람한사람 친히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수많은 청년들가운데는 나라의 방신을 지켜선 군인들도 있고 나라의 재부를 높여가는 로동자청년들도 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주시는

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려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려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며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고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 청년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한사람한사람 친히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수많은 청년들가운데는 나라의 방신을 지켜선 군인들도 있고 나라의 재부를 높여가는 로동자청년들도 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주시는

자애로운분위기에서 공화국 청년들은 부모형제에게도 감추어온 마음속 진정을 그이께 서슴없이 아뢰인다. 친아버지에게 매달리듯 새로 태어난 자신의 이름도 지어달라고 아뢰인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청년문제가 궁지높이 해결되고 청년강국이 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의 인사들은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지위가 훌륭히 담보되고 그들이 사회발전의 기동으로 되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하면서 조선의 청년들이 정말 부럽다고 찬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송정수